

‘관광 목표’ 즐거움이 ‘핑핑~’



목포의 대표 야간 관광인 '목포해상W쇼'가 오는 7월과 9월 열리며 관광객들을 화려한 불꽃놀이로 초대한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오는 9월과 10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2024 목포항구축제'를 잇달아 열며 올해 하반기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000만 관광 시대를 내건 목포시는 '항구도시'와 '목포9미(미)'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축제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오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0번째 열리는 이번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목포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이 축제는 가장 한국적인 맛을 간직한 국내 최대 음식축제로 인정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선정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시는 올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이어 내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칭)' 개최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는 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9월 국제남도음식큰잔치

10월 항구축제 등 잇따라

항구·9미 등 지역 장점 활용

2000만 관광시대 위한 항해

내년엔 '뮤직플레이' 등 개최

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을 소재로 남도 음식을 기반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목표를 세웠다. 40개국 220만명이 참여해 3200억원 이상 생산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목포시 측은 내다봤다.

오는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에는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2024 목포항구축제'가 진행된다.

목포의 대표 축제인 '항구축제'에서는 전통 파시(波市)와 해상 행렬, 수산물 경매, 문화 예술 공연 등이 손님을 맞는다.

'파시 경매'에서는 제대로 맛이 오른 가을 생선을 맛볼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시설 개선을 마친 '춤추는 바다 분수'와 함께 '목포해상W쇼'가 열린다.

오는 7월27일에는 노을공원에서, 9월14일에는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상W쇼'를 관람할 수 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근대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제야행'을 진행하며 야간 관광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관광객의 귀를 즐겁게 한 '목포 뮤직플레이'가 이어진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원동력인 목포 관광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대 한민국 명품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2배 늘었다

올 이용객 20만명 돌파...중국·몽골 등 국제선 운항에 급증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올해 20만명을 넘겼다. 무안군은 지난 23일 기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20만4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이용객은 24만6000여 명이었다.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50만 이용객을 목표로 세웠다. 무안공항은 올해 들어 다양한 국제선을 운항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무안에서는 현재 제주항공 중국 연길(주 2회)과 진에어 몽골 울란바토르(주 2회) 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부정기 노선은 베트남 다낭(주 2회), 나트랑(4일 간격), 중국 장가계(주 2회) 등이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항저우, 라오스 비엔티안 등 정기선이 새롭게 운항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다양한 국제 정기선 유치에 대해 정기선 운항 항공사에 대해 운항손실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장려금 기준을 신규·복항·증편 정기 국제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명호 무안군 미래성장과장은 "제주항공, 진에어의 정기선 운항과 활성화 협약 등으로 정기선뿐만 아니라 부정기선 개설이 확대되면서 공항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남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국제슬로시티총회서 완도 '해양치유' 홍보

군, 내년 6월19~22일 개최 자연환경·특산물 등 소개

내년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를 여는 완도군이 세계 슬로시티에 해양치유를 홍보했다.

완도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치타산타젤로에서 열린 '2024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에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참석해 해양치유산업을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국제 슬로시티 교류를 위해 열린 이 대회에는 33개국, 297개 도시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군수는 강연자로 나서 완도의 해양치유 산업과 천혜의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소개했다.

완도군은 내년 6월19일부터 22일까지 '2025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를 연다.

신 군수는 세계 슬로시티 시장들에 총회 초청장을 전하기도 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해양치유 정책으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받았다.

내년 총회에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의 시장과 슬로시티 네트워크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한다. 완도에서 국가별 교류 동향 파악과 신규 슬로시티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22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에서 완도 해양치유산업을 소개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도시 인증, 슬로시티 정책 공유, 발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정책, 웰니스 관광 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완도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 하당보건지소 예산 지원 중단에 상인 불편

시의회 2000만원 삭감...보건증 발급 위해 20분 거리 더 가야

목포의 주요 상업지역인 하당동에 있는 하당보건지소의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보건소 하당보건지소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7700만원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시의회가 2000만원을 삭감했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임상병리 혈액검사 장비를 살 수 없게 됐다.

효소 면역형 광측정장치인 이 장비는 후천면역결핍증(에이즈)과 B형 간염 등 바이러스 항원-항체를 검출한다. 이 장비를 사용해야만 보건증을 발급하고, 감염병을 선별할 수 있다.

장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하당보건지소는 14년간 이 장비를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았다.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하당지역 특성상 하당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시민은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당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들은 차로 20분 거리(직선거리 5km) 목포시보건소를 찾고 있다.

하당지역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시민 의료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정작 필요한 장비 예산을 삭감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당화 곱게 핀 영광 백수 해안도로



30리 길 인종샷 공간 마련도

영광의 대표 관광지 백수(白岫)해안도로에 '30리 해당화 꽃길'이 펼쳐졌다.

영광군은 해당화가 만발하는 6월을 맞아 해당화 꽃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공간(사진)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백수 해안도로 곳곳에는 여름이면 30리 해당화 꽃길이 펼쳐진다. 영광군은 지난 2000년부터 백수 해안도로 해당

화 꽃길을 지속해서 조성·관리하고 있다.

이달에는 백수를 대신할 전망대 주변 유희 부지에 해당화 군락지를 만들었다. 이곳에는 의자 2개와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해당화 군락지는 주변 바다와 섬, 노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당화 동산은 꽃과 하늘, 바다, 섬이 함께 어울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F1 경주장 달리는 바이크...스피드 쾌감 느껴봐요

28~30일 슈퍼바이크 페스티벌 두카티 등 3개 종목 무료 입장

두 바퀴로 달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2024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사흘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F1경주장) 상설 트랙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무료 입장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28~29일 '모터사이클 브랜드 페스티벌'과 30일 '코리아 트로피오 GP'가 잇달아 열린다. 축제 마지막 날 행사에는 대만,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의 슈퍼바이크 라이더들이 참가한다.

모터사이클 브랜드 페스티벌은 배기량 600cc 이상 경기관 두카티·피렐리 대회, 400cc 이상 KTM 대회 총 3개 대회로 진행된다.

코리아 트로피오 GP는 배기량별 최대 14랩을 가장 빨리 완주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장에서는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와 프라이다더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50명 이상의 안전 요원을 선수 5명당 1명씩 배



지난해 열린 '영암군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에서 관광객들이 프로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있다. <영암군 제공>

치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안전 요원들은 선도 주행과 추월 금지 관리 등을 담당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대규모 모터스

포츠 축제를 유치하겠다"며 "스포츠 관광 도시 영암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전국 다국적 근로자 진도서 '한마음'

다음달 20일 실내체육관서 1000명 참가 체육행사·공연 등

전국 다국적 근로자가 오는 7월20일 진도에 모여 우의를 다진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진도군협의회(회장 김남중)는 다음 달 20일 오전 9시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다국적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을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전국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가 주관하고, 진도군-진도군의회-진도경찰서-읍면사무소-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 탈북민도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다.

아나바다 바자(중고물품 교환)를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행사(통일 장벽 넘기·통일 지구공 띄우기 등), 외국인 장기자랑, 초대가수 공연, 시상과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참가자 신청은 오는 7월10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진도군협의회(061-544-2943)와 읍면사무소 총무팀, 민원실 등에서 받는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일 올림픽을 통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